

도시보건지소 확충 아간진료 부활...개원의시들 반발

2011.12.13 12:36

[쿠키 건강] 서울시가 공공의료 확충 사업에 도시보건지소 확충, 야간·휴일 클리닉을 포함시키면서 개원가에서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개원가에서는 서울시의 이 같은 사업 추진에 대해 서울시는 도시보건지소 확충하고, 야간·휴일 클리닉에 투자할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의료보호 예산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원가와 보건지소의 역할의 차이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하며, 아간진료의 경우 지역외사회와 협력해서 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서울시의 이 같은 사업 추진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차의료 활성화 정책과도 맞지 않으며 오히려 개원가를 죽이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A개원의는 “보건소에서 국민의 편익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보건지소 확충은 찬성할 수 없다”며 “보건지소에서 처상위나 의료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등을 돌보는 것은 관할지만 개원의와 똑 같이 환자를 보는 것은 무조건 반대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서울시의 야간진료 부활은 지역의사회와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B개원의도 “서울시는 보건소의 기능을 명확하게 알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보건소는 감염병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이번 사업은 전형적인 탁상행정, 전시행정”이라며 “기존 의료계의 질서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결국 환자에게 큰 불편만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도시형 보건지소를 확충할 예산이 있다면 의료보호 예산 먼저 확보해야 한다”며 “현재 일반 개원의들은 제대로 된 진료비도 받지 못한 채 진료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C개원의 역시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접근성·편리성은 늘겠지만 진료의 질은 떨어지고 개원가는 죽을 수 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서울시의 이 같은 정책은 보건지소와 개원가를 경쟁시켜 건보제정의 안정화를 꾀하게 된다”면서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차의료 활성화 정책에 반하는 행동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국민의 세금으로 보건지소를 확충해 대민서비스를 지원 하는 행위 자체가 의료를 왜곡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2년 서울시 지원형 보건지소 5개소를 저소득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설립해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75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보건소 야간진료를 ‘야간·휴일클리닉’이라는 이름으로 재추진한다.

‘야간·휴일 클리닉은 ▲평일 오후 7시~10시 ▲토요일 오후 1시~10시 ▲일요일 및 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로 대폭 늘렸다. 25개구 보건소마다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운전기사 각각 1명씩 총 4명으로 구성해 직정인을 위한 야간, 주말, 휴일 전문반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에 필요한 예산으로 26억 7500만 원을 책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박애자 기자

aj2214@medifonews.com

Copyright by kukniniilbo. Kukinews.

모인쇄하기 | X 창닫기